

2015년 의학도서관의 미래 전망*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학술위원회(역)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와 통신 혁명, 유전학 연구의 급속한 발전, 개인의 건강 유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졌고 이에 발맞추어 NLM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동시성과 연결성은 정보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전자통신·지적 재산권·정부 지원 연구의 성과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 관한 정책토론에 자극이 되기도 했다.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바꾸어 기존도서관의 역할에 탁월한 대안을 제공했다. Google 다음 세상에서 의학도서관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오늘날 의학도서관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대학 안에 있다. 의학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임상, 교육, 병원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를 위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자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 의학도서관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의학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2015년의 의학도서관이 자연스레 도달할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오늘날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임상전문의, 환자, 교수, 학생, 연구자, 행정가들은 각자 집, 사무실, 병실, 병원, 도서관에서뿐만 아니라 이들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중에도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데스크 탑, 휴대

컴퓨터, 입는 컴퓨터와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한다. 데스크 탑 장비와 여러 휴대용 장비들 덕분에 원격회의와 원격 교육이 손쉬워진다. 사람들은 정보의 양에 상관없이 더 많은 전자정보에 접근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전자정보와 원하지 않는 상업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높이 평가한다.

임상의와 환자, 건강한 사람도 대부분 전자검진기록을 이용한다. 기초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임상 연구자들도 전자정보시스템에 의존한다. 이러한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임상주의사항, 발표된 공식견해 등을 포함하는 관련 지식을 즉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 간호사, 공공 보건당국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요구한다.

어디에서나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여전히 가치가 높고 사람들이 (시설이 낡고 구식이거나 불편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한) 많이 이용한다. 도서관 건물과 공간은 재미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기술적으로 최신일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와 단체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몰려든다. 게다가 커피는 물론, 소규모 그룹스터디와 대규모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좋은 시설을 갖추고, 복잡한 전자정보를 다루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위해 통신시설이 잘 갖춰진 공간을 제공하고, 잠시 공부를 할 장소가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병실과 대기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환영이다.

*이 논문은 NLM Lindberg 관장과 Humphreys 부관장이 10년 후 의학도서관의 변화를 전망한 내용으로 N Engl J Med 2005;352(11):1067-70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였다.

도서관에는 인쇄된 의학색인(Index Medicus)도 없고 물리적인 형태의 책도 거의 없지만 사람을 위한 공간은 더욱 많다.

미래 도서관의 “가상” 장서-이용 가능한 전자정보의 집합-는 도서관 공간에 소장하고 보존하는 물리적 장서보다 훨씬 방대할 것이다. 2015년이 되면 많은 출판물은 오직 전자 형태로만 발행될 것이고, 과거의 연속간행물들이 디지털화될 것이며, 책과 원고 및 이미지의 전자본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도서관들은 과학 및 의학 관련 전자 정보의 접근권한을 축적하고 관리한다. 대규모 연구나 예측 연구, 동일 표본 연구 등의 결과로 얻어진 환자의 개별 정보가 범람하는 특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유한 전자정보를 보존하는 데는 책임의식과 상당한 재원이 요구된다.

저널은 미래에도 여전히 논문게재 심사를 거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많은 개별 논문은 독자적인 전자 형태로 이용된다. 전자정보의 상당수는 저작료를 내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부터 임상 실험 결과와 정부지원 연구 성과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에 부분적이나마 과학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 표준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여러 가지 유료 출판 모델들 덕분에 연간 구독료 인상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멀티미디어 “디지털 도서관”에는 유전학 연구 자료, 축적된 임상 및 공공 보건 정보, 출판 도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양질의 건강 정보들이 서로 풍부하게 연결되어 있다. 환자, 의사,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각기 다른 수준의 설명 자료를 찾아보기도 쉽다. 학습 자료와 최신 보건 소식은 관련 지역의 보건 서비스와 공개 임상실험에 관한 정보와 링크되어 있고, 임상 실험에 대한 설명은 요약된 결과와 관련 과학 논문에 다시 링크된다. 나날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고도로 숙련된 인간(사서)이 수행하는 선정, 정리(조직), 분석

및 링크 작업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가치가 창출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 도서관에도 여전히 사서가 필요하다.

표준화된 전자 건강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면 기록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 따라 원활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환자의 건강 기록이 표준에 따라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각 환자의 진단과 상황에 맞는 관련 지식을 찾아주는 “똑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전문가의 정보검색 같은 간단한 메커니즘은 지금도 일부 상황에서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전자 건강 기록을 이용하면 정보전문가와 원거리 상담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 관리팀의 다른 직원과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닌 임상사서(clinical librarian)에게 환자의 전자 기록 가운데 종합 증거를 요청할 때 특별지시를 해서 임상사서가 특정 환자의 요구 조건에 맞게 요약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환자에게 교육 자료를 요청, 작성,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행하게도 진정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통합은 여전히 단순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다. 원문, 사진, 음향, 영상 자료를 즉시 온라인에서 접근하는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 차세대 인터넷의 손자뻘이 되는 다양한 원거리통신의 조합 가운데에서 취사선택을 하고, 또 현재의 무선 랜 기술의 손녀뻘 되는 통신설비들이 마지막 수요자인 가정, 병실, 교실, 도서관까지 오는 데 드는 비싼 비용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자연 재해와 인공 재난이 일어나도 접근이 차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은 우리의 큰 과제이다. 이용자 환경과 정보 상품, 지적재산권 규정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2015년에도 의학도서관은 병원이나 학교를 대신해서 이러한 복잡성을 관리하는 논리적인 주체가 되어,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결정하고, 정보 서비스를

새로운 현실 상황들에 맞추어 변용하고, 핵심적인 이용자 교육과 지원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확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사서와 정보전문가 수를 늘려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의학도서관의 외부에 배치한다. 그들은 정보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한 검색 위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게 된다. 많은 사서들은 주제 분야와 정보과학에서 고급 훈련을 받았다. 건강관리팀의 일원으로 일하거나, 보조금 기획안을 작성하고, 병원의 평가위원이 되거나, 과학 부서에서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일하거나, 근거중심의학 수업 교수로 수업을 담당하고, 다국어로 된 보건 교양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협력과정에 참여하는 사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2015년의 의학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해본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도서관, 컴퓨터, 원거리통신의 역사를 돌아보면 잘 알려진 비관적 예측이 많다. 한 가지 유명한 예로, 1977년부터 디지털 이큅먼트(Digital Equipment)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켄 올손(Ken Olson)은 “개인이 자기 집에 컴퓨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한 것 중 몇몇은 아마 빗나갈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의학도서관이 건강관리,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질적으로나 효율 면에서나 유례없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학도서관을 이끌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